

< 2021 훈련도감 복습용 요약본 >

1. 현대시

C1. 학생은 여기까지

30%: 매우 주관적인 문학 지문

70%: 매우 객관적인 선지

-> 선지에 집중!

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?

- 방법론 X // 최소한, 충분한 정도만
 - 1. 시간 나누기
 - 2. 일반화하는 능력 (문학적 약속들)
- 유기적으로 읽자 X // 유기적으로 쓰였음을 고려하자 O
- 사실적으로 읽자! (있는 내용이나 똑바로 보자)

학생 수준이 아니면 답이 아니다!!!

- 수능 당일에는 틀린 선지만 고를 수 있으면 된다 (매우 노골적) (우리는 답만 고른다!!!)
- 모르겠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기

현대시 읽는 순서: <보기> (가볍게) -> 시 (가볍게, 분위기와 정서 정도만 파악) -> <보기> -> 문제

선지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

- 1. 극복 의지
- 2. 유사 <-> 상반, 대조, 대비
- 3. 긍정 <-> 부정
- 4. 구체적인 정서 표현

수능 당일:

- 시간 촉박할 수 있음 or 지문이 어려울 수 있음
 - > 시간 단축 필요 but 정확하게: **빨리 읽기 X, 빨리 결정 O**
- EBS 연계: **수능식으로 해석** (예전에 배운 지식 적용 X)
 - 뜻에 너무 집착 X (큰 흐름 보기, 단순 선지 대응)

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섣부르게 답 고르지 말고 보류!

쉬운 문제도 수능 당일에 마주치면 틀릴 수 있으니 항상 당일을 염두에 두자!

'학생은 여기까지'의 범위

- 시는 쉽든 어렵든 상관 X // 어려운 문제가 중요
- 시는 최소한으로 읽기 (직독 -> 판독)
- 문제: 용어, 약속

직독: 분위기 파악이 목적 (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봄)

- 우리는 화자가 구별하는 걸 구별해야 한다!
- 상황 -> 정서, 태도 (비슷)
- 직접 써져 있는 정서는 그 자체가 분위기
- 간접: 풍경(배경) 묘사, 시적 대상

판독: 세부적인 의미 파악 - 문제의 <보기>, 선지를 통해서

- 문장 단위: 구조가 같으면 뜻도 같다! (아니라면 반대) // 직독할 때 파악
- 변화에 주목: 절대 놓치면 안 됨!
 - 시간: 회상(~던, ~더라 등)
 - 공간: (주로 소설에서)
 - 시적 대상:
 - A 봤다 B 봤다 C 봤다 ... -> 아 바뀌는구나
 - 외부 -> 자아 (유사 or 상반)
 - 정서: 부정적 -> 긍정적
- 화자 --(주된 관심사, 시선, 연상)--> 시적 대상
 - 자연물 (다른 모든 것들에 적용 가능)
 - 자아: 성찰
 - 다른 사람: 특정인(그리움, 예찬, 연민), 공동체, 현대인(삶, 문명 비판) 등
 - 자연: 자연 친화
 - 인생: 성찰(그냥 깊이 생각, 깨달음)
 - 사회: 비판
 - 기타
- 시적 대상: 막연할 때는 그냥 신경 X //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집중

독해:

- 정상:

- 1. 확인: 단어 추출
- 2. 정리: 문장화, 순서 정리
- 3. 이해, 추론: 조합

- 우리가 하는 짓: 1. 확인 2. 이해, 추론 (정리 X)

- 문장화, 순서 정리: **두 줄 넘는 발문은 무조건 해석!**

- 모든 문장에 적용은 시간 낭비 // 결정적인 순간에만 사용 (뭔가 좀 아닐 때) (본능적으로)
- 주어 서술어 찾기 등

- 선 일치 후 추론: 대부분 선지는 이 선에서 해결됨

한 선지 붙잡고 오래 고민 중? 이미 출제자의 의도에서 멀어지는 중!

선지에서 단어 자체의 뜻 보지 않기 (명사의 상징성 따지지 않기) (맥락 반드시 고려)

당연히 맞는 말들에 의심이 들면 안 됨

- 자명한 선지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기

문학 기출 분석: 지문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것!

- 시간 너무 소요 X // 틀려도 좋으니 결정은 빨리

문학 용어를 작품으로 처리: 느슨하게!

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표현 찾기!

-> 다른 정서 표현 나오기 전까지는 그 표현이 시 전체 분위기를 대표함

시간, 공간, 대상이 시상 진행 중 갑자기 전부 바뀔

- > 내용이 이해가 안 됨
- > 그냥 거기를 끊어버리기!

문제 푸는 순서 (1분 30초 절약)

- 내용

- 단독 지문

- 1. <보기> 없는 문제 (표면)

- 2. <보기> 있는 문제 (심층)

- 3. 복합 지문

- 한 작품씩 해결: 익숙한 지문, 짧은 지문부터

- 작품 하나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음! (80%)

- 표현

- 4. 보편

- 5. 개별, 특수

- - - - -

@ 물기, 유연함 (생명력) <-> 건조, 경직 (죽음)

@ 생동감: 생 + 움직임

@ 시선의 이동: 상하, 좌우, 원근 등 좀 큰 이동

@ 청각의 시각화: 청각을 본 것처럼 표현

- 한 방에 '청각의 시각화'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림 (시각 >>> 청각)

-> 청각을 집중적으로 찾기 (소리를 연상시키는 것도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)
(생각나는 장면이 있기만 하면 시각적 이미지 존재)

@ 순응: 편안, 만족 (괴로움 X)

@ 병치

- 유사: 공통점 부각

- 상반: 대비 효과

@ 고뇌 = 힘듦 = 괴로움 = 내적 갈등 = 복잡한 심정

- 부정적 상황이면 O

- 강하게 표현될 필요 X

@ 시적 긴장: 몰입을 의미, 자명 (좋은 시는 다 시적 긴장이 있음) (소설에서의 긴장감과 다름)

@ 초월 지향 (영원, 무한, 진정한 자유 등) <-> 현실 (한계, 유한, 죽음, 고통, 구속 등)

- 현실 vs 환상, 낭만, 이상, 초월
- 문제 흐름: A가 초월을 뜻한다면 B는 현실(한계)을 의미한다 (or 반대)

@ 자조: 스스로 조롱

@ 말줄임표, 명사형으로 종결 -> 무조건 여운 O

@ 대화체: 통일된 개념 X

- 청자 존재 유무? 건네는 말투? (대체로 건네는 말투)
- 평가원 시험에 제대로 나온 적 X, 나와도 정답 선지인 적 X
- 칠판에게 말 걸기: 말 건네는 방식 O / 대화 형식, 구성 X / 독백 X

@ 친근한 어조: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 포함

@ 부정적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다양한 태도: 포용, 체념, 비판, 극복 의지

-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화자가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 시도 있음

@ 화자의 말투

- 독백: 혼자서 중얼거림
- 독백체: 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으로 쓴 문체
- 대화: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. 또는 그 이야기
- 대화체: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

@ 반어: 반대로 말하기

- 주제로 직결
- (대화 중) 부정적 태도: 상대방에 대한 못마땅함, 냉소
- 고전시가에서 거의 없음 (역설도 마찬가지) (그래도 확인은 필수! 확신 금물)

@ 상징(진짜) vs 비유(가짜)

- - - - -

\$ ‘시상을 전개하고 있다’ = 시의 내용이 전개됨 = 자명

\$ ‘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’: 최소한의 중요함만 확인되면 그냥 자명

\$ ‘사물(자연물, 인공물)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’

- 의탁, 투영, 비유, 상징 (의탁 != 투영, 비유 != 상징 but 시험으로 나온 적은 X)
- 정서: 감정, 인식(앎), 태도(자세, 마음) // 선 인식 후 태도
- ‘드러낸다’: ‘간접적으로’ 내포

-> 잉여 사물은 없다! 사물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선지 (자명)

\$ A와 B를 ‘연결 지어’: 꼭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어도 됨 (구체적 연결 방식에 대한 언급 X) -> 자명

\$ ‘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’: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니 O

\$ ‘~적’, ‘엿보인다’, ‘느껴진다’, ‘바탕에 깔고 있다’ 등: 비겁한 표현

\$ ‘적절하지 않은’ -> 웬만하면 맞다고 쳐줘라

끄을